

4월 24일(월) / 신13-15장

▶**내용요약:** 신명기 13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악에서 떠날 것을 권고한다. 14장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와의 성민으로 부르면서 구별된 생활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이방의 애도 풍습을 따르지 말 것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고 십일조를 드릴 것을 말한다. 15장은 7년마다 가난한 자의 부채를 면제하고 구제하며 중들을 해방하도록 한다.

▶**질문:** 팔호를 채우세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셨음을 기억하라”(15장)

▶**생각하기:** 신명기 14장에서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성민이라”는 말씀이 2절과 21절에서 반복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강조하면서 이방인들의 잘못된 풍습과 정결한 짐승만을 먹을 것과 십일조를 드리는 생활을 말씀하신다. 이를 통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단지 일주일 한 번 교회 나가거나 예배드리는 것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의식주 문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 함이 요구된다는 점을 알게 해준다.

4월 27일(목) / 신22-24장

▶**내용요약:** 22장은 사회생활을 위한 여러 규례들이 주어진다. 이웃 사랑, 결혼과 성생활이 언급된다. 23장은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열되고 이어서 이스라엘 진영을 거룩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24장은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초점으로 해서 여러 규례가 주어진다.

▶**질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시는가?(23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24장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했기에 그때의 아픔과 서러움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노예로 살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도 교만하거나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사탄의 종 노릇하며 비천하게 살았을 인생임을 기억하자!

4월 30일(주일) / 신31-34장

▶**내용요약:** 31장에서부터 34장 12절까지는 신명기 전체의 결론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인생을 정리하며 뒤를 이을 후계자를 세우고 율법을 기록한다. 31장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권면한다. 32장은 모세가 연설 후에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다. 33장에서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인도하던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의 모습으로 베푸는 축복이 나열된다. 하나님의

4월 25일(화) / 신16-18장

▶**내용요약:**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대해 기록한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이고 칠칠절은 유월절을 7주간 지나 지킨다. 초막절은 광야생활을 기념하며 1주간 지키게 된다. 17장은 우상 숭배자에 대한 재판 규례와 이스라엘 왕의 선택과 그 의무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다.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 선지자들과 같은 지도자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한다.

▶**질문:** 지혜자의 눈을 어렵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16장)

▶**생각하기:** 17장 17~2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과 개인적으로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율법을 항상 옆에 두도록 한다. 이는 우리에게도 **지도자의 준비**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다. 물질이나 이성에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말씀을 가까이하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4월 28일(금) / 신25-27장

▶**내용요약:** 25장은 재판, 가정생활, 경제 활동에 대한 여러 규례들이 순서 없이 나열된다. 이제까지 모세가 언급하지 않았던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사항 등이 보충하여 설명된다. 26장은 신명기를 구성하는 모세의 3개의 연설 중에 두번째 연설이 끝나는 부분으로 땅의 소산과 십일조에 대한 규례가 언급된다. 27장은 모세의 세 번째 연설이 시작되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예식을 지키게 한다.

▶**질문:** 말씀에 따르면, 악인을 처벌하는 태형은 최고 몇 대까지 때릴 수 있었는가?(25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25:17)고 말씀하신다.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기습 공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행위였다고 지적한다. 하나님은 자신이 보호하는 백성에 대한 공격을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보호하신다!**

사랑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각 지파별로 받게 될 축복이 기록된다. 34장은 모세의 마지막 순간이 나온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올라가 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모세의 생전에 베푸신 마지막 은혜인 것이다.

▶**질문:** OX로 답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트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32장)

4월 26일(수) / 신19-21장

▶**내용요약:** 19장에서는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위한 도피성 제도와 죄악에 대한 처벌을 위한 증인에 대한 규례를 볼 수 있다. 20장은 전쟁에 임하는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가 기록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에 임할 것과 겁으로 돌려보낼 자들이 언급된다. 21장은 살인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속죄법과 포로를 아내로 취할 때나 장자의 상속권, 폐역한 아들에 내리는 벌 등이 기록된다.

▶**질문:** OX로 답하세요. “악이나 죄에 관하여 두 세 사람의 증인이 아닌 한 사람의 증인으로 죄를 정할 수 있다”(19장)

▶**생각하기:** 20장은 하나님이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면서 겁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사람을 언급한다. 낙성식을 하지 못했거나 포도원 과실을 먹지 못했거나 약혼은 했으나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전쟁터에서 돌려보내라 하신다. 하나님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스라엘이 적과의 싸움에 임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군병으로 각자의 인생의 전투에서 과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집중**하고 있는가?

4월 29일(토) / 신28-30장

▶**내용요약:** 28장은 앞장의 연속으로 하나님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을 기록하는데 앞장에 비해 조금 자세히 다룬다. 29장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도록 권면한다. 40년전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 모두 광야에서 죽었기에 새로운 세대를 위한 언약을 맺도록 알려준다. 30장은 언약을 어긴 백성들이 회개할 때 주어질 용서와 축복에 대한 말씀이다.

▶**질문:** 팔호를 채우세요. “그러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리라”(29장)

▶**생각하기:** 모세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29:29)고 한다. 사람들은 보이고 나타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그것이 축복이라거나 저주라고 쉽게 판단한다.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이 **은밀하게 행하시는 분**임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깨어서 하나님이 은밀히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고통스런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닐까?

▶**생각하기:** 모세는 120년간 인생 중에 마지막 40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셔서 광야생활을 이끌었다. 비록 그가 트리바에서의 잘못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의 소원과 그 간절함을 알기에 인생 마지막에 약속의 땅 가나안의 모습을 보여주시 후에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다. 모세의 인생 마지막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까지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기대하자!**